

## 닭고기 납품가 현실반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양계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식업계에서 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동네마다 즐비한 치킨가게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닭요리들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닭고기 원산지 표지제의 도입으로 닭과 계란의 소비도 점차 늘어갈 것으로 기대되므로 새로운 해가 시작된 만큼 양계산업도 활기를 띠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석유 폭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얼마 전 치킨과 치킨으로 만든 햄버거를 전문으로 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인 K업체에서 닭 가슴살을 원료로 만드는 햄버거 두 가지를 판매 중단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K업체 측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닭 사육이 눈에 띄게 줄어 닭 가슴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기로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양계업계는 닭 가슴살 가격이 오름에 따라 햄버거의 판매 단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닭고기의 kg당 생산원가는 1,90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70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닭고기 생산비가 크게 오른 데 반해 납품할 시에는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납품가격으로 인해 양계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계육협회는 K업체에 kg당 1,150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납품해 어려움이 많았으며 가격에 대해 K업체와 협의를 했으나 K업체 측의 거절로 인해 협상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배합사료 값의 인상도 한몫 했다. 사료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곡물의 생산량에 비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재고량이 줄고, 급격한 환율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양계업계는 사료업계가 지난 5월 대비 국제 곡물가가 50%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급등을 이유로 잇속을 챙기려 하고 있다며 원가를 공개하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사료 원가를 공개하고 서로에게 최대한 손실이 없는 전략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유성엽  
제18대 국회의원  
(무소속/정읍)



## 양계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또한 유통업체에서 가격협약이 안되는 경우 업체별 저가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 또한 생산비 이하 납품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육계 계열생산업체뿐 아니라 거래당 사자에게도 손실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측된다. 과열되는 가격 경쟁으로 인해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가게 되면 결국 거래물량이 줄어 시장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닭고기 한 마리를 사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점차 늘어가는 데 반해, 대형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외식업체는 생산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일부 인상하거나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치킨점들의 가격은 대부분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에 육박하며, 특히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한 마리에 무려 1만7천원이나 하는 메뉴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가격 책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킨요리 가격 결정에 닭고기 원가는 미미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외식업체의 반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혈 납품으로 시장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시장 확대가 아닌 축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양계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소득 창출을 하려면 적정가격이 유지돼야 한다. 또한 적정가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산과 수요가 맞아 떨어지거나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결국 일련의 악질적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사료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생산비를 낮춘다면 양계산업이 한 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료의 경우 원료의 전량 가까이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의 품질을 높여 사료요구량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양계산업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품질개선과 유통구조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3박자를 모두 갖추면 외국 시장으로의 수출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생산비를 낮춤으로써 수출에 있어 가장 취약점으로 작용하는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현재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 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양계산업의 미래를 위해 닭고기를 적극 수출할 수 있는 닭고기 수출촉진 방안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양계산업의 생존, 발전대책을 위해 전 양계관련 종사자들은 힘을 하나로 모아, 국내산 육계시장 확대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가장 크게 향유할 양계농가나 그들을 대신할 자발적이고 자조적인 생산자 단체에 의해서 스스로 주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양계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길이며 중국의 목적지이다. 